

제주사회복지신문

>2014년 10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84호

“나눔명 살아온 대로 나눔명 살아가게 마썸”

「2014 제주 나눔 대축제」 성대한 잔치 열린다

나눔문화 활성화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2014 제주 나눔 대축제」가 오는 11~12일까지 제주시 오라동 제주종합경기장 광장에서 성대한 막을 연다.

제5회 대한민국 나눔 대축제의 지역행사로 제주를 비롯한 서울·부산·경기·인천·대전·울산·광주·충북 등 9개 시·도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축제는 제주에서는 두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제주지역의 나눔과 기부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눔으로 행복한 희망 제주!’를 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축제는 제주인의 다

양한 나눔을 테마로 하는 공감하는 나눔, 참여하는 나눔,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나눔, 노래하는 나눔, 베품시장 등으로 구성되어 제주지역의 나눔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대규모 축제의 장으로 운영된다.

개막식이 열리는 11일에는 흥겨운 축하공연에

이어 나눔유공자 시상과 나눔실천 서약식 등으로 꾸며지는 개막식에 이어 재능나눔으로 이루어지는 나눔콘서트, 제주유나이티드 FC 팬사인회, 홍보예술터크 도서기부 릴레이로 이루어진 책나눔 등의 무대행사가 진행되며, 둘째날인 12일에는 나눔을 실천하는

이웃들이 참여하는 맛있는 나눔행사로 ‘우리가족 나눔 버거 만들기’가 진행된다.

축제기간 중에는 나눔카페와 기념 포토존이 운영되며, 1년 후 받아보는 희망 나눔엽서 쓰기, 현장 양케이트, 제주나눔문화 교육

관, 캘리그라피 배우기, 캐리커처그리기 등을 제공하는 부대행사들이 다채롭게 열린다.

특히, 축제기간 동안 책과 볼펜 기부를 받고, 기부된 책과 볼펜을 필요한 곳에 나눔으로써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산교육의 장으로 운영하여 축

제의 의미를 한층 키워나갈 예정이다. 현장에서 도서기부할 경우 선착순 500명에 한해 기념품도 제공한다.

또한, (주)시와 월드와 함께 제작한 도민참여작품을 통해 나눔에 대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번 축제는 축제 홍보물 제작, 부스운영, 무대공연, 축제진행 등이 재능기부로 진행되며 제주지역 주요 공기업과 기업체, 프로축구단 등에서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 속에 진행됨으로써 나눔 축제로서의 의미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제주사회복지협의회 고치

환 회장은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제주인의 나눔정신을 바탕으로 한 나눔대축제가 개최되어 나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축제를 계기로 나눔과 기부가 생활 속에서 실천가능한 일임을 느끼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10대 시선으로 바라본제주(18)	
■ 사회복지소식	4·5면
도 장애인문화예술커뮤니티 센터찾길음 내달 KT제주배 전도 장애인 IT경진대회 개최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 특집	7면
제1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2014 제주 사회복지 합창대회	
■ 전면광고	8면

SK에너지가 응원합니다.

- 사회복지시설·사회적기업 홍보사업 결과보고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난 26일 봉개동에 위치한 내트럭하우스에서 ‘SK 에너지와 지역예술가가 함께하는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적기업 홍보사업’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

이 사업은 내트럭하우스

를 이용하는 화물차량 중 24대에 제주지역 예술인이 제작한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적기업 홍보물을 화물적재함 외부면에 게재하는 사업으로, 영업용 화물차량을 이용한 달리는 홍보매체역할을 하게 된다.

본 사업은 SK에너지가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했으며, 영업용 화물차량(5톤~14톤) 24대에 도내 사회복지시설 5곳, 사회적기업 3곳의 홍보 광고물이 게재되어 내년 3월까지 제주를 비롯해 전국을 누비게 된다.



10월 사회복지시설·단체 행사

※ 다음호에는 11월 행사 소식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알고 싶은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메일(blueseas-hm@hanmail.net) 또는 팩스(702-3383)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759-1377(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팀)

시설·단체명	행사명	주요내용	일시·장소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프로젝트 매니저 아카데미	지역조직화와 기업사회공헌 대응전략/심한기(청소년문화공동체 ‘꿈’ 대표) 디지털 미디어시대의 대응전략 /방대욱(다음세대재단 상임이사)	15일(수) 10시~18시 협의회 2층 삼다수홀/참가비 있음	702-3784
		사회복지 조직의 브랜드 관리 및 포지셔닝 /양원석(푸른복지사무소 소장)	20일(월) 10시~18시 협의회 2층 삼다수홀/참가비 있음	
	행정실무 교육	문서관리의 이해, 재무회계의 이해 /고경운(전사회복지협의회 상근부회장)	22일(수) 10시~18시 협의회 2층 삼다수홀/참가비 있음	
연강병원	10월 도민강좌	정신분열병(조현병)/정신과전문의 고동범 과장	16일(목) 17시~18시 연강병원 회의실(오동동)	702-7900

제주행복기자단 • 1

제주사회복지신문은 장애인 및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시민기자모임 '제주행복기자단'이 사회복지 현장소식을 전하는 코너를 신설, 이번호부터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제14회 이주민과 함께하는 한가위 한마당



15개국 900여명 참석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부설 제주이주민센터(센터장 이소영)는 지난달 9일 제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제14회 이주민과 함께하는 한가위 한마당'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일본, 중국 등 15개 국가 이주민과 근로자 등 900여 명이 참석해 투호, 지구공 굴리

기 등 함께 체험하며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장 밖에서는 제주시 보건소가 운영하는 무료진료 및 검진을 비롯해 무료 이미용 봉사, 환경체험 및 가족액자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노동문제 무료상담 지원 등이 마련됐다.

배관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출신 후틴 씨는 "한국에 온지 석 달 밖에 안됐지만 한국인의 역동적인 모습에 많이 놀랐

고, 배울 점이 많다"고 말했다.

매해 한가위 한마당에 참여하고 있다는 필리핀 결혼 이주민 안젤라 씨는 "이런 행사에 오게 되면 제주에 살면서도 자주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을 볼 수 있어서 좋다"며 "다문화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들이 지속적으로 열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용호 기자

※ 제주행복기자단은 장애인 당사자 시각에서의 사회복지 현장 및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언론기고 활동으로 건전한 기고 문화 형성 및 장애인 권익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0명의 기자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족 예체능 진행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강철남)는 지난달 14일 제주시민회관서 도내 위탁아동과 부모,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우리가족 예체능'을 성황리에 마쳤다.

우리가족 예체능은 도내

위탁아동 등 어려운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놀이체육, 가족사진 촬영, 페이스페인팅, 매직풍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에 참여한 위탁부모들은 "행사에 참여해 손자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즐길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진로직업 박람회 체험부스 운영



사회적기업 일배움터는 지난달 15~16일 제주진로직업 박람회 직업체험관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일배움터는 가드너(정원

사)에 대한 기본 실무와 정보 및 직업세계관에 대해 설명하고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에게 직업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제공했다.

경제골든벨 제주지역 우승



서 우승을 차지했다.

삼성증권이 후원하고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가 주관한 이 사업은 경제증권에서 그동안 교육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상식문제, OX 문제 등 배운 경제지식을 겨뤄 전국 각 지역대표를 뽑는 자리다.

은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봉한)은 지난 8월 30일(토)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된 청소년경제증권교실 경제골든벨 제주지역 예선에

예선에서 우승함에 따라 지난달 26일부터 27일 양일간 에버랜드에서 전국 각 지역대표로 참가한 기관들과 본선을 치른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경제 일일캠프



이날 캠프는 해군사관학교 주기능 교수를 초청해 경제의 개념확립 및 올바른 금융지식과 건전한 소비습관을 키우기 위한 경제교육을 진행했으며, 한국은행 화폐전시관과 다양한 화폐들이 전시돼 있는 방범원을 견학했다. 캠프에 참가한 김나은 학생(김녕중 3학년)은 "경제라는 단어가 많이 낯설었는데 지금은 많이 친숙해진 느낌"이라며 말했다.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홍주일)은 지난 8월 11일 관내 아동 및 청소년 15명과 함께 경제일일캠프를 운영했다.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9월 식품기탁자



▲김정심씨=비누 16개, 식용유 24개 ▲금강수산유통=가자미 42kg ▲금강축산유통=육류 317kg ▲김치원=김치 40kg ▲꽃비나리는뜨락=떡 664개 ▲동원F&B 제주=냉동만두 등 식재료 4325개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쌀 1050kg ▲삼다유통=삼다수(2L×6)300팩 ▲서문식품=두부 398모 ▲싱싱부식=김치 50kg ▲암양영농조합법인=빵 257봉 ▲이든이네=멸치 9kg ▲자연드림이도점=빵 141봉 ▲제주보리존=보리빵 64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2L×6)100팩 ▲제주해양경찰서=세탁세제 200개 ▲파리바게트통광초점=빵 435봉



사회복지협의회 2014년 8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사용액
재가결연후원	420,000	0
난치병환아후원	60,000	0
자원봉사후원	355,000	355,000
복지사업후원	1,055,000	0
푸드마켓후원	3,120,000	586,00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고치환 ■ 편집인: 김수완 ■ 등록번호: 제주라 01010
■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디자인: 디자인열림

10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18) - '평화의 마을을 찾아서'

바른 먹거리를 만드는 착한 사회적 기업, 평화의 마을을 찾다

하늘은 높고 땅은 살찐다는 가을, 9월의 어느 날 몽생이기가단 2기는 사회적기업 '평화의 마을'을 찾았다.

평화의 마을은 중증장애 인재활시설임과 동시에 제주도내 사회적 기업 1호에 등록된 곳이다.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적 부분, 경제적 자립기술, 태도를 길러주고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들이 우리사회 속에서 건강한 경제주체로 자리 잡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청정 제주도의 돼지고기, 무항생 닭고기, 생야채를 주원료로 하는 수제햄과 수제 소시지를 5無(無보존료, 無인공조미료, 無색소, 無대두단백, 無아질산나트륨)을 실천하며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유일하게 제주에서 소시지, 햄을 만드는 식품분야에서는 유일하게



▲ 몽생이기가단은 지난달 중증장애인재활시설 겸 제주도내 사회적 기업 1호로 등록된 '평화의 마을'을 방문했다.

HACCP인증이 되어있고 HACCP에서 표창을 받았다.

또한, 평화의 마을은 2013년 독일식품박람회에서 금메달 6개를 받았으며,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햄과 소시지를 만들기에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 같다. 더불어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소시지와 햄은 제주흑돼지로 만들어

지고 재료의 대부분이 제주에서 나는 것과 직접 기른 채소를 재료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에 차별성이 있었다.

보통 사람들은 장애인들이 만든 것 이라고 하면 값이 싸고 품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평화의 마을에서 만들어지는 햄과 소시지는 일하는 근로자들과 운영진들 간의

오랜 노력과 고생 끝에 맛과 품질을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값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취재 갔을 당시, 몽생이기가단 2기도 평화의 마을에서 만든 소시지와 햄을 맛보았다. 한 입을 베어 무는 순간 평소 시중에서 사먹는 햄과 소시지와는 전혀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었다. 돼지고기 특유의 비린 냄새도 나지 않고 야채분말가루를 넣은 것이 아니라 다진 야채를 넣어 소시지 안에 버섯, 당근 등이 눈에 보일 정도였다. 너무 맛있어서 계속 손이 가는 소시지와 햄이었다.

평화의 마을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80%가 지적장애인들이다. 다른 시설에

비해 지적장애도가 심한 편이어서 근로를 하기 까지는 많은 훈련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들은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값진 일을 하는 기술인이며 바른 먹거리를 만든다는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평화의 마을처럼 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 속에 한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업이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어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많이 이용해주었으면 하는 멋진 고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 이 영상물은 위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게시판 알람' 내 사회복지신문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 14

채무조정제도



양영화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법률홍닥터 변호사 양영화입니다. 이번 달에는 채무를 조정하여 신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기관과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 어떠한 제도를 이용할까요?

김○○씨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밤낮없이 채권자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벌고 있는 수입으로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김○○씨는 어떠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는 자신이 현재 보유한 재산만으로 청산절차를 거친 후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

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한 뒤 잔존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워크아웃제도

개인워크아웃은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연체이자 및 이자를 감면받고, 원금은 채무성격에 따라 감면을 받으면서 최장 10년 이내에 장기분할 상환을 함으로써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고, 협약

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불법추심 신고안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의 관계인(보증인, 친족, 함께 근무하는 자 등)에게 알려 부담을 주는 행위, 심야 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채권추심을 받는 채무자는 증거수집(문자 내용 보관, 음성통화 내용 녹음 등)을 하여 금융감독원(1332)나 경찰(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안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

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문의할 수 있고,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FO

법률홍닥터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을 거점으로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민과 사법제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 법률홍닥터 이용방법
- 사회복지시설·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 전화상담 : 702-3782

道 장애인문화예술커뮤니티 센터 첫걸음 내딛어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은 지난달 전국에서 최초로 장애인 문화예술커뮤니티 센터를 설치,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장애인이 살고 싶어하는 문화마을을 만들자!’라는 주제로 ‘43개 읍·면·동 1개 문화예술동아리 조직 및 운영’ 등 4개 비전을 중심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사업 첫해인 오는 12월

까지는 ▲찾아가는, 찾아오는 문화예술 공연 및 평생교육 사업 ▲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차원의 창작지원 ▲전국 문화예술인이 참가하는 제1회 전국장애예술인 대축제 개최 ▲재가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실태 및 욕구조사 ▲재가장애인 문화향유 권리에 대한 원탁토론회 개최 등을 펼칠 예정이다.

장애인문화예술커뮤니티 센터는 복지관 스포츠여가



문화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전화나 직접 내방해 언

제든 장애인 문화예술과 관련한 상담을 할 수 있다.

한가위 맞이 독거노인 후원물품 전달



사회복지법인 춘강 어울림터(원장 조인석)에서 직업재활 교육을 받고있는 훈련생 28명은 한가위를 맞아 지난 달 4일 독거노인 가정 13가구를 방문해 직접 만든 토속된장 등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소/식/마/당

노인학대 예방 홍보 체험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지난달 12일 학생문화원에서 열린 제7회 제주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에 참여해 노인학대 예방 홍보 체험관을 운영했다.

이날 체험관에는 노인체험기구를 이용한 노인체험을 비롯해 노인학대 인식개선 및 예방을 위한 코너, 학생들의 효의식 함양을 위한 효도서약서 작성코너 등을 운영했다.

거주인과 함께하는 한가위 축제



혜정원 아가의집(원장 박두현)은 지난달 6일 추석맞이 명절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거주인과 직원, 봉사자 등이 함께하는 한가위 축제를 진행했다.

다함께 명절음식을 만들어 먹고, 씨름, 투호던지기, 닭싸움 등 민속놀이와 줄다리기, OX게임 등 단체 게임을 즐기며 전통에 대한 이해와 추석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을주인과 함께 추석 송편 만들기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지난달 2일 마을주인과 함께하는 송편만들기를 진행했다.

(주)제주은행(행장 이동대)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지역 어르신과 아라어린이집(원장 이승희)원아, (주)제주은행 봉사단이 함께 모여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빛은 송편은 지역주민에게 나눠져 추석의 의미를 되새겼다.

가족관계강화캠프 진행



지혜상담치료센터와 빛과소금지역아동센터는 지난 8월 28일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가족과 함께 가족관계강화캠프를 진행했다.

이들은 박물관 관람을 비롯해 푸드테라피, 관계강화를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등을 체험했으며, 가족 간의 관계향상과 의사소통의 기회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행복한쉼터 개원 3주년 기념행사



행복한쉼터(원장 정석왕)는 지난달 15일 개원 3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직원 모두가 지난 3년간의 회고애락을 되새겨보며 서로에게 축하와 격려의 편지를 나누는 시간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떡나눔행사 등으로 진행됐다.

정석왕 원장은 “행복한쉼터가 뇌병변증장애인들의 행복제작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직업재활능력향상 힐링캠프 실시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장 이민숙)은 지난 8월 21~22일 이틀간 안덕청소년수련원에서 ‘직업재활능력 향상을 위한 힐링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캠프는 일상, 직무활동에서의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규칙과 질서지키기, 조별 협력, 변별력, 지구력, 근력향상을 위한 미니올림픽과 영화관람, 레크레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했다.

그룹홈 청소년과 함께 섬문화 체험나서



디딤돌그룹홈(원장 송일심)은 지난달 10~12일까지 ‘제주도 섬 문화체험’이라는 주제로 캠프를 열었다.

아름다운 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섬 속의 섬’ 우도방문을 비롯해 일출랜드, 환상숲꽃자왈, 해녀박물관 등을 돌며 제주도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며, 우리가 살고있는 제주도를 몸소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추억을 만들었다.

장애인 가구에 '맞춤형 자원봉사'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고충석)는 지난달 21일 조천읍 함덕리에 살고있는 장애인 가구를 찾아 도배와 페인트 등 재능기부를 통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드림 스타트 가족과 함께한 이랜드 행복한 초대



(주)이랜드파크(대표이사 강성민)는 지난달 19~20일 1박2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와 함께하는 '제3차 이랜드 행복한 초대' 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이랜드파크 제주지역 4개 지점(켄싱턴 제주호텔, 켄싱턴 리조트 서귀포·한림점, 한국콘도 중문점) 직원자원봉사자들이 서귀포에 거주하는 드림스

타트 아동과 가족 등 40여 명과 함께 레크리에이션, 프시케월드 관람 등 문화활동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 이들을 켄싱턴리조트 서귀포점(총지배인 김광인)으로 초대해 바비큐 식사, 숙박, 해수사우나 등 리조트 현장체험을 통해 아동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전해 줬다.

박상대·김정심씨, 푸드마켓에 쌀 기탁



대성수산업어조합법인 박상대 대표와 제주시 아라동 김정심 구산마을 부녀회장은 지난 8월과 9월에 걸쳐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쌀 400kg과 비누, 식용유 등

을 기탁했다.

이 부부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어서 더욱 행복해요"라며 매년 푸드마켓과 쌀, 생필품 등을 기탁해오고 있다.

자활사업 주민 대상 금융, 재무교육 실시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센터장 임철남)는 지난 8월 27일 자활근로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자립, 자활 및 창업을 위한 가계경제 노하우'라는 주제로 소양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가

계경제의 현실과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은 자활사업 참여주민들에게 합리적 소비를 통해 안정적인 가계경제를 만들어 가는 내용으로 꾸러졌다.

KT제주배 전도 장애인 IT경진대회 개최

도내 유일의 장애인 IT대회인 '제8회 KT제주배 전도 장애인 IT경진대회'가 지난달 26일 KT제주고객본부에서 치러졌다.

KT제주고객본부(본부장 오상곤)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대회에는 109명이 참가한 가운데 예선전을 치러 고득점을 획득한 40명이 정보검색과 문서작성 문제를 놓고 기량을 겨뤘다.

이날 대회에서 박성민씨



가 지체장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현대영씨와 신철웅씨, 이주영씨가

지적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소/식/마/당

지적·자폐성장장애인 대상 원예활동 진행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으로 지적·자폐성장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원예활동을 진행 중이다. 심리재활 프로그램의 일환인 원예활동은 말채를 이용한 꽃꽂이, 플라워볼 만들기, 압화부채 만들기 등 다양한 원예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매주 8명의 자원봉사자가 참가해 이용인과 봉사자 간의 일대일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추자도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회장 이상언)가 주최 주관하는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이 지난 8월 28일에는 추자도를 찾았다.

지역주민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레크댄스 등 문화공연과 네일아트, 이·미용, 수지침(뜸)서비스를 비롯해 재활의료상담 및 치료, 켈리양초 즉석 만들기 체험, 장수희망 즉석사진 촬영과 복지상담 및 지역주민 욕구조사 등을 진행했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꿈 공장' 3회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윤호)은 지난달 20일 초등학교 4~6학년 10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 '꿈 공장' 3회기를 진행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포털사이트 인기 웹툰작가와의 만남으로 만화가가 되기까지의 여정부터 웹툰 제작과정, 직접 스토리를 구성해 나만의 만화를 그려보는 활동까지 이뤄졌다.

2014 청소년지도자 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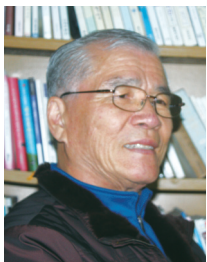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허철수)는 오는 13일 도내 청소년수련시설,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기관 및 단체 등 70여 명의 청소년지도자들과 함께 2014 청소년지도자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의 꿈과 희망! 청소년지도자가 함께합니다!'라는 주제로 지역 청소년 활동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청소년지도자들의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칼럼

존경할 만한 부자



김길웅

시인 · 수필가

한국갤럽이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우리나라 국민 30%가 ‘10억 원 있으면 부자’라 답변했다는 것. 자산규모 10억이면 부자라 한 것일 테다.

현재 한국인이 생각하는 자산규모는 평균 25%로 1993년에 13억 원이던 걸 감안하면, 급절이 났다. 절반가량인 45%는 10억 이하의 돈을 가진 사람도 부자라 보고 있어 10억 원은 아무나 쉬 만질 수 없는 큰돈임을 알 수 있다.

부자 중, 존경할 만한 사람이 많은지 물은 결과에 주목하게 된다. 66%가 ‘존경할 만한 인물이 많지 않다’고 답했다는 것. 가장 존경할 만한 부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는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13%), 이진희 삼성전자 회장(10%), 유일한 전 유한양행 회장(6%),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2%),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1%) 등 1%이상이 7명에 불과했다 한다. 전체 응답자 60%가 존경할 만한 부자가 없다고 답했다니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존경할 만한 부자가 많지 않아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란 말을 떠올리게 된다. 사회 고위층 인사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다. 빈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에서 부자들을 굶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런 계층 간의 갈등이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사실, 한국갤럽이 밝히고 있는 ‘부자’는 태반이 재벌 혹은 그 가족이거나 구성원이 거처에서 떼어내어 개인으로 말할 수 없는 이름들이다. 그 부자란 사람들이 사회에

어떻게,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는 답이 군색해질 것이다.

외국의 경우가 부럽다. 1차 대전 때, 영국의 고위층 자제가 다니던 이튼칼리지 출신 2000명이 전사했다. 포클랜드 전쟁 시, 영국 여왕의 둘째 아들 앤드루가 전투헬기조종사로 참전했는가 하면, 6·25전쟁 때에도 미군 장성의 아들이 142명이나 참전했는데, 그 중 35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으며, 당시 미8군 밴플리트 사령관의 아들은 야간 폭격 임무를 수행하던 중 장렬히 전사했다.

부자는 사회에 환원할 수 있어야

지금 우리 사회는 지도층의 높은 윤리의식의 발현과 실천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 부자가 돈을 쥐고만 있으면 안 된다. 사회에 환원할 수 있어야 한다.

정주영 명예회장이 통일소 5000마리를 물고 판문점을 거쳐 북한으로 내달리던 장면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한다.

시론

보편적 복지시대의 서막인가



문익순

(전)제주4·3사업소장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이 2014년 7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고가회원권, 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하거나,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부유층을 제외한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까지 지급됨으로써 보편적복지시대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

이 시대의 노인들은 오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조국근대화에 헌신하여온 세대이다. 암울했던 농경시대의 궁핍한 일상에서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다. 자녀 양육과 교육에 전념하느라 노동력 있는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미처 자신들의 미래는 준비하지 못했다. 기초연금은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입된 매우 적절한 제도라 생각된다.

복지사각지대 없애는 사회안전망 구축돼야

기초연금제도 시행으로 한동안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선택적, 보편적복지의 이분법적 논쟁은 무의미한 시대가 되었다. 흔히들 선택적복지를 주장하면 보수, 보편적복지는 진보세력이라는 바로미터가 형성되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이 구분은 흥미하게 되었다.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완전한 보편적복지실현은 요원하지만, 막대한 국방비를 부담해야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루어낸 복지확충 노력의 산물임에는 틀림이 없다.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읍면동에서 영세민에게 직접 쌀과 부식비를 지급하던 시절을 반추하면 격세지감이다. 빈곤층은 국가에서 쌀과 부식을 지원받던 소극적 지위에서, 수급자라는 권리주체의 능동적 지위가 되었다. 복지제도는 경제발전과 궤를 함께하며 70년대 빈곤층에 대한 최소 생계 보장차원에서 생산적 복지, 생애주기별복지, 보편적복지로 변천하고 있다. 복지가 일률적인 구휼차원이 아니라, 수요자에 알맞은 맞춤형복지를 실행하는 시대를 맞고 있음이다.

국가가 보호해야할 사회적 약자들은 노인 외에도 장애인, 아동, 임산부, 청소년 등 복지수요는 많고 다양하다. 이를 감당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원확보와 더불어 복지전달체계가 완벽해야 된다. 복지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배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사망자나 비수급자에게 복지급여를 잘 못 지급하는 것을 종종 보아 왔기 때문이다.

복지가 확충되면 수혜의 그늘에 안주하려는 역기능도 존재한다. 소득 향상으로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립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저소득층의 자립은 복지행정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기고

아름다운 소통, 함께하는 다문화



조중석

제주시 여성가족과

2012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에 의하면 제주에서 3542건의 혼인 중 389건이 다문화로 10쌍 중 1쌍은 다문화부부이다. 다문화가족은 빠르게 우리 사회 속으로 파고들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 뿐 만 아니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그들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제주시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내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서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자. 무

엇이 문제이겠는가? 언어소통에 대한 두려움이 우선이고, 그 다음은 자녀교육문제, 먹고 살아가야할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그 나라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살아가야할 사회통합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러한 「언어→자녀교육→자립→통합」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정착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초기 언어문제와 자녀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서비스와 통·번역 서비스,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등 언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관광통역안내사 등 각종 취업교육을 제공하고,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일자리를 연계하는 한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

업을 통해 직접적으로도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통합의 경우 다문화인식 개선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역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녹아들게끔 지역사회단체와의 자매결연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물론 입국초기부터의 사례관리 및 가정 내의 불화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가족통합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은 무조건적이고 일회성의 보여주기식 사업을 지양하고, 진짜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효자손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가정에서도 한국문화에 녹아들기 위해 한국어 습득 등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를 갖추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1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2014 제주 사회복지 합창대회」



▲ 지난달 18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린 제1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도내 사회복지 직능단체장이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 낭독하고 있다.

‘모두가 행복한 복지제주’ 제주사회복지인 화합무대



▲ 지난달 20일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에서 도내 사회복지시설 합창단이 참여하는 ‘아름다운 조화, 아름다운 울림’ 2014 제주사회복지 합창대회가 열렸다.

제주 사회복지인의 화합과 협력의 장인 ‘제1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2014 제주 사회복지 합창대회’가 지난달 18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개최됐다.

지난달 18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기념식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주관했으며, 도내 사회복지시설, 단체 종사자 및 생활(또는 이용)인, 자원봉사자, 공무원,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유공자 30명에게 표창

이 수여되었으며, 도내 사회복지 직능단체장이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 낭독을 통해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옹호와 인간으로서의 고귀한 가치 구현을 추구하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한 후 문원일 도 보건복지여성국장과 현정화 복지안전위원장에게 사회복지시설 윤리경영실천 공동서약문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달 20일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에서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합창단이 참여하는 ‘아름다운 조화, 아름다운 울림’ 2014 제주사회복지 합창대회가 열렸다.

제주도민,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제주시희망원, 아라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6개 팀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펼친 결과 장애인어울림 ‘피앗’ 합창단(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에게 금상이 돌아갔다.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상금이 주어졌으며, 관객호응이 가장 좋은 아라하모니합창단에게는 ‘아름다운 울림상’을 별도로 시상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하고 사회복지의 날로부터 1주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제정했다.

사회복지 유공자 명단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고관용(제주한라대학교) △고경화(서귀포시 복지위생과) △제주 황세왓카리타스 가톨릭의 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 △양재준(제주장애인요양원) △강 정(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박미란(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오인열(제주양로원) △김현아(한라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고은경(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변은영(삼화휴먼시아어린이집) △(주)삼다유통 △(주)오투기경남영업부 제주지부 △김옥화(온누리봉사회)

▲올해의 사회복지 공무원 △대상=성현숙(제주시 주민복지과) △본상=양일경(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류건숙(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장려상=현은정(서귀포시 동홍동), 이영림(제주시 삼도2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표창 △도남오거리식당 △대한항공 다솜마루 △강복열(좋은인연봉사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표창 △윤주영(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사)대한미용사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공로상 △김길웅(시인·수필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봉사상 △홍태욱(온누리봉사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강현수(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안연옥(좋은인연봉사회) △박애순(디자인열림) △김민수(서귀포시장래인종합복지관) △현동기(무지개마을)

합창대회 수상팀 명단

▲금상=장애인어울림 ‘피앗’ 합창단(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은상=봉아름지역아동센터 합창단(봉아름지역아동센터) ▲동상=그루터기중창단(제주시희망원), 동그라미 합창단(구엄지역아동센터) ▲장려상=JSW 펄-하모니 합창단(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 아라하모니 합창단(아라종합사회복지관) ▲아름다운 울림상=아라하모니 합창단

나눔으로 행복한 희망 제주!

2014. 10. 11(토)-12(일)

"나누며 살아온 대로 나눔을 살아가게 마십시오"

2014 제주 나눔 대축제

장소_제주종합경기장 광장

행사당일 도서기부자 선착순 500명 대상 기념품 제공, 우리가족 나눔버거 만들기 체험(행사당일 일반인 참여가능)

일시 2014년 10월 11일(토) 11:00 ~ 10월 12일(일) 17:00

장소 제주종합경기장 광장

내용 • 개막식 (11일, 오전 11시)

- 지혜로운 나눔(11일, 오후 2시) - 도서기부 릴레이를 통해 도민들이 기부한 도서를 나누는 자리 ※ 행사당일 도서기부자 선착순 500명 대상 기념품 제공
- 노래하는 나눔(11일, 오후 4시) - 아마추어 밴드들의 신나는 공연
- 맛있는 나눔(12일, 오전 11시) - 우리가족 나눔버거 만들기 체험(행사당일 일반인 참여가능)

※ 학생 자원봉사인증_행사 기간 중 축제 모니터링단 운영에 참여하는 초등학교(4학년 이상), 중학생, 고등학생에게는 '사회복지자원봉사 2시간을 인증'해 드립니다.

상설부스운영(11일, 11:00~ 12일 17:00)

- 함께하는 나눔터(장애인생산물, 사회적기업생산물, 재활용품, 수공예품 등 판매, 벼룩시장 운영)
- 공감하는 나눔터(장애체험, 문화활동체험 등)
- 참여하는 나눔터(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등)
- 실천하는 나눔터(도서기부 • 교환 • 무료배부 등)

부대행사(11일, 11:00~ 12일 17:00)

- 1년 후 받아보는 희망엽서 쓰기, 캘리그래피 익히기, 캐리커처 그려주기, 나눔카페 운영 등

주최 **Jeju**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SSN**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